

조혼, 여성 할례, 명예살인은 그 문화권의 오래된 전통인가 폐지되어야 할 악행인가.
풍습의 두 얼굴

202311457 유다연

에세이의 기본적인 조건인 각주가 없어서 필자가 쓴 부분과 인용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음.

조혼, 여성 할례, 명예살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렇다고 이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조혼, 여성 할례, 명예살인을 여러 국가와 여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조혼이다. 조혼은 공식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결합을 포함해 혼인이 가능한 법적 연령 이전에 하는 혼인을 말한다. 조혼율을 타 대륙에 비해 아프리카에서 높게 나타난다.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사는 여성 중 4억 2,500만 명이 18세 미만에 결혼했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지금까지도 조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혼은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까.

조혼으로 인해 소녀들이 이른 나이에 성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병 같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다. 남성들이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 아내를 얻길 원한다. 이는 소녀의 경우 처녀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HIV/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어린 신부를 선호해 소녀들의 성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임신은 높은 유아 및 모성 사망률을 초래한다. 출산 당시 산모가 19세 미만일 때 신생아의 영양실조, 허약 및 저체중과 같은 영양결핍의 위험은 높아진다.

또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빈곤이 대물림된다. 조혼은 소녀의 일생을 거쳐 그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이는 조혼으로 소녀들의 잠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소녀들이 청소년기에 결혼하게 되어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상실한다. 교육은 소녀들이 조혼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발판을 제공해주고 조혼의 가능성도 줄여줄 수 있지만 조혼으로 인해 현실의 벽에 막혀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해 계속해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임하라 주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2 - 24세 여성 중퇴자 중 31.7%는 '결혼' 때문에 학교를 떠났다고 조사되었으며 자녀 양육, 부모나 보호자의 반대가 그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수행된 인터뷰에서는 남자들이 부인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그 이유로 여성들의 권한 강화와 권력관계의 변화가 두려워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처럼 조혼은 자녀 양육, 가사노동,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음은 여성 할례이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여성의 성기

에 칼을 대는 시술을 뜻한다. 여성 할례 또한 아프리카에서 매우 많이 행해지고 있다. 4세에서 8세의 소녀들이 여성 할례에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풍습은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약 1억 300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이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단에서는 여성의 85%, 이집트에서는 60%, 소말리아에서는 99%, 에티오피아에서는 98%, 지부티에서는 98%, 나이지리아에서는 60% 이상의 여성들이 시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약 200만 명이 시술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예측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 할례로 인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여성 할례는 여성이 출생 이후부터 첫 월경 시작 사이에 발생 된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사용되는 물건들이 소독이 잘되지 않아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병균감염, HIV, 종기, 양성 종양, 출혈, 쇼크, 크리토럴 낭종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불임증, 성적 기능장애, 우울증, 비뇨 관계의 오염, 다양한 산부인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체적인 고통 뿐만아니라 어린 나이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심리적인 충격 또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예살인이다. 명예살인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명예살인은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확인되어왔으며 통계적으로 매일 평균 13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를 봤을 때 2017년 한 해 동안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약 50,000명이었으며 그중 5,000명이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살해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명예살인의 사례로는 13세 소녀가 남자아이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6세 소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패스트푸드 점원으로 일하였고 남자친구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살해당했다.

명예살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명예살인이란 이름 안에 숨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추역을 함께하던 수많은 이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조혼, 여성 할례, 명예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뿌리를 자르려 노력하고 있다. 예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행위들을 국가에서는 왜 법까지 만들며 없애려 노력하는 것일까. 도덕적인 행동이었다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 숨은 어둡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이제 그만 멈추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조혼, 여성 할례, 명예살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통이라고 정의하기엔 풀어야 할 물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혼, 여성 할례, 명예살인은 폐지되어야 할 악행이다.

학술참고자료

설병수. (2016). 에티오피아의 조혼 관습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42,

69-106.

권수현. (2004). 도덕규범의 보편성과 다원성의 문제. 철학연구, 92, 1-29.

서상현. (2010). 아프리카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27), 59-84.

임병필. (2019). 명예살인과 이슬람의 상관성 및 사례 분석. 중동연구, 38(2), 27-52.

김중관. (2010).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
중, 20(2), 27-62.